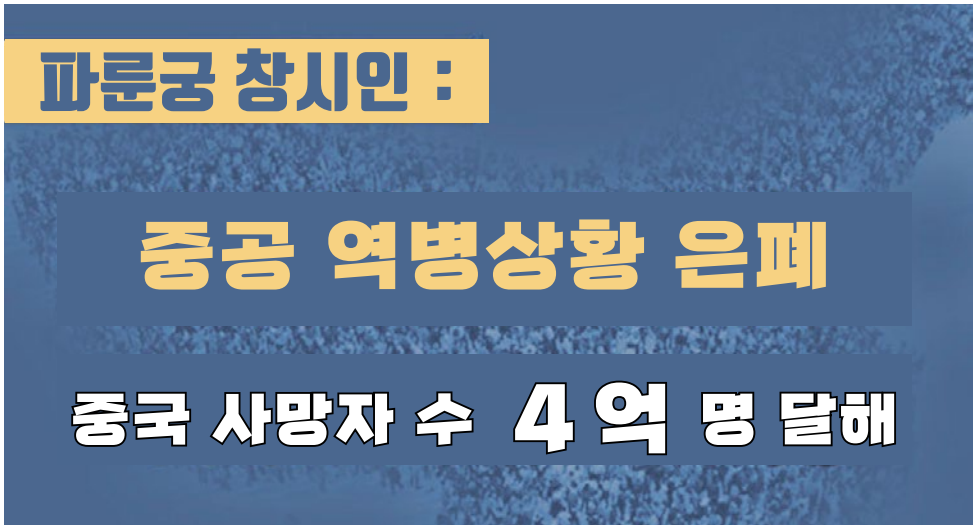
장백산천지

2023 년 2 월 3 일 제 450 기 금요일

2023 년 2 월 2 일 까지 대기원 사이트를 통해 중공의 당, 단, 대 조직 탈퇴를 성명한 인수 :

4 억 786 만 명

“중국 전염병 사망자, 3 년간 4 억 넘어”



[밍후이왕] 중국공산당 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 수를 은폐하고 있는 가운데, 실제 사망자 수가 4 억 명을 넘어섰다는 관측이 제기됐다.

2023 년 1 월 15 일, 파룬궁 창시인 리훙쯔 (李洪志) 대사는 중국공산당이 전염병을 3 년 이상 은폐해왔고 이에 따라 이미 4 억 명이 사망했으며, 전염병이 끝날 때면 중국에서 총 5 억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밝혔다. 또 2003 년 사스 (SARS) 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중국에서 2 억 명이 사망해 인구가 급감하자 중국공산당 당국이 두 자녀 제한 정책을 폐기했다고 공개했다.

2021 년 12 월, 저명 인구학자 이푸셴 (易富賢) 은 2020 년 중국 인구가 중국공산당의 공식 인구 조사 데이터에 언급된 14 억 1 천만 명이 아닌 12 억 8 천만 명이라고 추정했다.

■“대약진 이후 최대 사망사건”

미국의 소리 (VOA) 1 월 11 일 보도에 따르면, 미국에 사는 한 북경 시민은 8 일간 가족 5 명을 잃었다. 중국공산당 성장급 대우를 받던 운남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전 부주임, 치산 (祁山) 당지부 부서기, 녕하 (寧夏) 검찰청 전 당지부 서기, 후쉬밍 (胡敘明) 검사장, 중국공산당 소장 (少將), 장쉐푸 (姜學福) 전 훈련기지 사령관, 중국선박공업총공사 전 부사장 펑빙린 (酆炳林) 등이 무더기로 사망했다.

군사전문가인 벤 로센 (Ben Lowsen) 은 1 월 5 일 잡지 ‘디플로맷 (diplomat)’에 기고한 글에서 “중국인은 이제 대약진 이후 최대 규모의 사망 사건에 직면하게 될 것”이라고 지적했다.

■ 각 지역 장례식장은 이미 과부하 상태

상해시 바오싱 (宝兴)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작년 12 월 28 일에 말했다. “우리는 8 시 부터 번호수를 발급합니다. 사람들은 매일 4_5 시간 씩 줄을 서서 번호를 받습니다. 번호를 받지 못한면 그 다음 날에 또 와서 줄을 서야합니다. 지금은 매일 4_5 백씩 (시체) 화장 해야 하는데 전에는 하루에 최고로 90 구 시체를 화장했습니다. 직원들은 이미 밤낮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.”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상해시에는 장례식장이 모두 15 집이 있다.

하북성 랑방 (廊坊) 의 한 화장터 관리 책임자에 따르면, 북경사람들이 감염으로 사망한 가족을 밤에 화장해 달라고 요청한다면서, 북경에서는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 반년 후에야 화장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. 이 화장터 책임자는 또 현지 사망자도 다 화장할 수 없고 비용도 비싸서 랑방 농민들은 감염으로 사망하면 화장하지 않고 매장하며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줄을 서야 한다고 전했다.

리 대사께서는 여러해 전에 이미 역병은 중국에서 재난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따라서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주셨다. 리 대사께서는 < 이성 > 이라는 글에서 “중공사당 (中共邪黨) 을 멀리하고”, “진심으로 진언 (真言) 을 염 (念) 하는 것이” “모두 가장 좋은 영단묘약”이라고 말씀하셨다.

『전법륜(轉法輪)』 출간 28 주년 기념 독서회 열려

▲ 2023 년 1 월 4 일, 『전법륜(轉法輪)』 출간 28 주년 기념 독서회가 서울 용산구 '천제서점' 북카페에서 열렸다

[밍후이왕] 2023 년 1 월 4 일, 『전법륜(轉法輪)』 출간 28 주년 기념 독서회가 서울 용산구 '천제서점' 북카페에서 열렸다.

천제서점 장숙 대표는 "많은 사람들이 『전법륜』을 찾는 이유는 살아가면서 궁금해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책 속에 담겨 있기 때문"이라며, "출간기념회를 통해 『전법륜』이 한국 사회에서 널리 퍼지길 희망한다."라고 밝혔다.

이번에 열린 출판기념회는 두 번으로 나누어 진행했다. 30 여 명의 참석자들은 모두 천제서점과 인연이 있었다. 대부분 천제서점에서 매달 열리는 파룬따파 9 일학습반에 참가한 경험이 있거나, 9 일학습반에 참가신청을 했지만 사정이 있어 참가하지 못한 경우였다. 9 일학습반에 참가한 경우라도 열심히 수련하는 사람, 이번 행사를 계기로 『전법륜』을 처음 읽게 된 사람 등 다양했다. 참가자들은 상화롭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『전법륜』을 함께 읽고 수련 체득과 『전법륜』을 읽은 소감을 교류했다.

■ 읽을 때마다 새로워

2 년 전 광화문을 지나다 우연히 받은 파룬따파 전단에서 『전법륜』을 알게 된 김민주 (32 세, 여) 씨는 천제서점 9 일학습반에 참가했다. 이후 『전법륜』을 열심히 읽고 있다는 김 씨는 "『전법륜』은 똑같은 내용인데 다음날 읽으면 다르다. 읽을 때마다 새롭게 느껴진다."라고 말했다.

『전법륜』을 늘 읽는 모녀도 참가했다. 다큐멘터리 PD 김윤지 씨는 멀리 대구에서 소식을 듣고 오신 어머니를 모시고 이곳을 찾았다. 김 씨는 "독서회를 통해 많은 분을 만나서 기쁘고, 이런 자리가 마련되면 또 오고 싶다."라고 말했다.

그는 파룬궁의 사람더러 선을 향하게 하고 집착심을 내려놓도록 가르치는 부분이 매우 마음에 와닿는다고 말했다.

■ 마음이 여유로워져

지인 소개로 독서회에 참석한 이학미 (70 세, 여) 씨는 "『전법륜』을 읽기 시작한 뒤, 마음이 여유로워졌다."라고 했다. 이 씨는 『전법륜』 독서회에 대해 "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와 남녀노소 다양한 참석자들이 있어 신선하고 좋았고, 『전법륜』을 꾸준히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"라고 말했다.

■ 베스트셀러 신화 28 년간 이어져

출판 당시 『전법륜』은 베스트셀러였다. 1996 년 '북경청년보(北京青年報)' 선정 북경 10 대 베스트셀러, '북경석간신문(北京晚報)' 선정 1, 2 월 베스트셀러에 올랐다. 사회적 관심만큼이나 수련생의 숫자도 크게 늘어 1999 년 중국의 수련생 수는 1 억 명에 달했다.

28 년이 흐른 지금도 『전법륜』은 천제서점에서 판매한 파룬따파 서적 중 누적 판매량 1 위를 기록한 책이다.

■ 배경소개

『전법륜』은 '진·선·인(真•善•忍)'을 원칙으로 하는 파룬따파 수련 지침서로, 1994 년 1 월에 출판했다. 책의 저자는 파룬궁 창시인 리훙쯔(李洪志) 선생이다.

리훙쯔 선생은 1992 년 부터 시작해 파룬따파를 공개적으로 전수하셨다. 1992 년 5 월 _1994 년 년말까지 중국의 수많은 도시를 돌며 2 년간 사회 각 계층을 향해 56 기 전법학습반에서 강의한 내용을 정리해 1994 년 『전법륜』을 출판했다.

이듬해인 1995 년 1 월 4 일, 리 선생은 북경 공안대학 강당에서 『전법륜』 출판기념회를 가졌다.

2022 년 파룬궁 수련자 172 명 , 중공 박해로 사망

2022 년 파룬궁 (法輪功 , 파룬따파) 수련자 633 명이 중공에 의해 불법 노동교양 판결을 선고받았고 , 172 명이 중국공산당 (중공) 의 박해를 받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.

◀ 2022 년 박해로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일부 사진 .

[밍후이왕] 강택민의 '명예를 실추시키고 육체를 소멸하고 경제를 파탄하라', '때려죽여도 그냥 죽은 거로 치고 때려죽였으면 자살로 간주하라' 는 학살 정책하에 2022 년 중공은 '제 20 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안정 유지' 등을 구실로 파룬궁 수련자를 장기간 괴롭히고 박해했다 . 감옥 , 구치소 , 파출소 , 세뇌반 등 수감 장소에서 전기고문 , 수갑고문 , 좌형 (坐刑), 아사고문 , 당겨서 늘이는 고문 (抻刑), 폭행 , 성학대 , 약물 손상 등 100 가지가 넘는 고문으로 파룬궁 수련자의 수련을 포기시키기 위해 그들을 핍박했다 .

■ 파룬궁 수련자 172 명이 중공의 박해로 사망

밍후이왕의 보도에 따르면 , 2022 년 파룬궁 수련자 172 명이 중국공산당 (중공) 의 박해를 받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. 이들은 중국 23 개 성 , 자치구 , 직할시에 분포해 있으며 , 국가공무원 , 엔지니어 , 노조 부주석 , 부교수 , 법제 일보사 기자 , 교사 , 회계 , 경찰 , 보석상 , 재무 총괄 , 부향장 등 사회 각계 엘리트들도 포함됐다 .

밍후이왕에 따르면 할빈시 최진실 (崔金實 , 88) 은 납치된 당일 박해받아 숨졌으며 이미 후두 관이 절개된 상태였다 . 하남성 주구 (周口) 시 리궈쉰 (李國勳) 도 불법적으로 수감된 첫날 박해받아 세상을 떠났고 , 산서성 대동시 뉴란윈 (牛蘭雲) 은 경찰에 납치된지 14 시간 만에 불가사의하게 사망했다 . 성 도시 비도 (郫都) 구 황쑤란 (黃素蘭) 은 팽주시 경찰에 납치된지 사흘 만에 박해받아 사망했다 . 성도의 왕쉐밍 (王學明) 은 내몽골에서 강의하다가 억울하게 4 년 형을 선고받고 후허호트 제 1 감옥에서 6 일 만에 박해로 사망했다 . 대련시 69 세 파룬궁 수련생 장쓰친 (張思琴) 은 대련 구치소에서 8 일 만에 박해로 사망했다 . 내몽골 바린좌기 지윈즈 (季雲芝) 여사는 구치소에서 48 일 동안 고문 박해를 받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. 하북성 천안시 쑹나이원 (宋耐文) 은 잔혹한 고문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 . 쑹나이원은 생전에 중공 강택민 깡패 집단을 고소해 여러번 고문당했는데 , 그는 10 여 년의 가혹한 박해로 집과 가족을 잃었다 . 악양시 자오췬란 (趙群蘭) 은 약물 등의 박해를 받고 세상을 떠났다 .

■ 파룬궁 수련자 633 명이 중공 박해로 불법 판결받다

밍후이왕 통계에 따르면 2022 년에 파룬궁 수련자 633 명이 중공의 박해로 불법 노동교양 판결을 받았는데 , 그중 373 명이 3 년 이상 형을 선고받고 , 190 명의 평균연령은 60 세 이상 이며 , 가장 연장자는 86 세 였다 .

또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52 명 사회 각계 엘리트들도 불법 판결을 받았는데 이들은 국가공무원 , 대학원 부교수 , 법관 , 경찰 , 기업의 고위임원 , 고급 엔지니어 , 고급 교사 , 고급 기술자 , 공상은행 직원 , 국방과기대 박사 , 병원 원장 , 회계 , 의사 , 퇴직 군인 등으로 포함했다 .

원 공군항공대학 외국어 교관 부교수 류옌 (刘艳) 은 3 년 반 불법 판결을 받았다 . 상해 건축약전류 (弱电) 전문가인 파룬궁 수련자 쉬융칭 (徐永清) 은 불법적으로 4 년 형을 선고받고 , 벌금 1 만 원을 약탈당했다 . 쉬융칭은 바로 상소를 제기했다 .

원 심양시 공안국 형사지대 기술부문 엔지

▶ 4 면에 계속

◀ 3 면의 계속

니어 둥이란 (董怡然) 은 억울하게 3 년 형을 선고받았다……

2022 년 알려진 정보중에서 파룬궁 수련생이 중공인원에 의해 약탈당한 현금은 3479807 원 이다 . 그 중 불법심판으로 내린 벌금은 3349500 원 이고 , 경찰로부터 갈취당한 금액은 130307 원 이다 . 광동성 혜주시 자오톈화 (赵天华) 는 불법판결 7 년 형을 선고받고 , 벌금 50 만 원을 약탈당했다 . 산동성 위방시 우청서우 (吴成收) 는 억울하게 11 년 형을 선고받고 , 10 만 원을 약탈당했다 .

중공과 강택민의 파룬궁 박해는 모든 사람을 피해자로 만들었다 . 중공의 죄악은 하늘에 사무치고 하늘은 중공을 소멸하려 한다 . 공안 , 검찰 , 법원 , 사법 요원은 중공에 어떤 환상을 품지 말고 중공의 사악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. 파룬궁이 오래된 누명을 벗을 날이 머지않았으며 죄지은 자에 대한 응보가 실현되고 있다 . 이 마지막 순간에도 여전히 박해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은 당장 악행을 멈추고 파룬따파 사부에게 진심으로 참회하고 납치 , 불법 수감된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구출을 적극적으로 도와야만 속죄의 증거가 돼 하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.

박해소식

대안시 자오수친 (赵淑琴), 실종 2 년 만에 불법 형 선고받고 감금

[밍후이왕] 길림성 대안시 파룬궁 (法輪功) 수련자 자오수친 (趙淑琴 . 여 .75) 은 실종된 지 2 년 만에 억울하게 실형을 선고받고 감금된 것으로 밝혀졌다 . 그녀는 2021 년 3 월 9 일 장춘시 기차역에서 실종된 뒤 , 딸이 백방으로 찾았어도 행방을 알 수 없었다 . 그런데 자오수친은 중공 (중국공산당) 에 납치된 뒤 불법적인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길림성 여자 감옥에 감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.

자오수친은 2021 년 3 월 9 일 북경에 사는 딸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딸과 외손자를 보살펴주려고 북경에 가던 중 장춘 기차역에서 경찰에게 납치됐다 . 경찰은 북경에서 개최되는 '양회'를 위해 철저히 감시하던 중 , 자오수친이 심신 수련법인 파룬따파 (法輪大法) 와 관련한 물품을 지녔다는 이유로 납치해 재판에 넘긴 것이다 .

대안시 정법위 (정치법률위원회) '6.10' 사무실과 국보대대는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녀를 백성구치소에 감금한 후 재판에 넘겼는데 , 병원에 입원한 딸과 어린 외손자를 돌봐야 한다며 사정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. 가족은 2 년 전부터 실종된 자오수친을 백방으로 찾다가 최근에야 , 이미 불법적인 재판에서 징역 3 년 6 개월 , 벌금 5 천원 형을 선고받고 길림성 여자 감옥 10 감구 (환자 감구역) 에 감금된 사실을 알게 됐다 . 소식에 따르면 , 자오수친은 고문 박해로 생명이 위급해지자 , 감옥 병원에 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.

자오수친은 불법적인 납치로 감옥에 감금된 후 박해로 인한 건강 악화로 병원 감옥에 감금됐고 , 제대로 수발을 받지 못한 딸도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. 사악한 중공은 또 한 번 좋은 사람을 박해해 가족을 이별시키는 인간적 참극을 빚었다 .

길림성 서란시 칠순 쿵판친 , 불법적으로 3 년 형 선고받아

[밍후이왕] 길림성 서란시 파룬궁 수련자 쿵판친 (孔繁芹 혹은 孔繁琴 , 女 , 71) 은 불법 납치된 후 , 2022 년 12 월 30 일 서란시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3 년 형을 선고받았다 .

쿵판친은 길림성 서란시 정양주택단지에 거주했다 . 파룬따파 (法輪大法 , 파룬궁) 를 수련한 후 진선인 (真 • 善 • 忍) 의 표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돼 심신에 이로움을 얻었다 . 1999 년 7 월 20 일 , 사악한 중공 (중국공산당) 은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. 2000 년 12 월 18 일 , 그녀는 파룬궁을 위해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천안문 광장에서 평화적으로 청원했다가 납치된 후 북경 먼터우거우 (門頭溝) 구치소 , 하북 랑방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박해당한 바 있다 .

2022 년 2 월 24 일 아침 9 시경 , 서란시 경찰이 쿵판친의 집에 찾아와 그녀를 괴롭혔고 , 뒤이어 쿵판친을 공안국 국보대대로 납치했다 . 쿵판친은 병원에 보내져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, 혈압이 200 을 넘었다 . 밤에 경찰은 쿵판친을 유치소로 이송했다 . 하지만 건강문제로 쿵판친의 수감은 거부됐다 . 쿵판친은 집에 돌려보내졌고 , 쿵판친의 아들은 경찰로부터 2000 원을 갈취당했다 .

2022 년 12 월 30 일 , 쿵판친은 서란시 법원에 불법적으로 3 년 형을 선고받았고 벌금 4000 원을 갈취당했다 .